

대통령 표창

**대광서림 김주목 대표**

대광서림은 과학기술 전문출판사로 1972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32년간 전문출판의 외길을 고집하는 뜻심 있는 출판사이다. 대광서림은 '21세기 시리즈'를 비롯해 건축, 기계, 법령집, 식품공학 관련 도서를 출간하며 전문인들의 지식 산실을 도맡고 있는데, 전문출판사로서의 진면모는 이러한 서적 출간에만 있지 않다. 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해 전문 저술인을 키워내고 있으며, 기초과학 분야의 기술도서 개발 보급으로 기술 인력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광서림 김주목 대표(73)는 “대광서림의 책이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리지는 않았지만, 전문분야에서 힘을 쏟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으로 오래도록 사랑받고 싶다. 앞으로도 과학기술 출판 및 출판업계 공동 발전을 위해 출판인으로서 할 일을 다하겠다”며 이번 책의 날 대통령 표창 소감을 전했다.

대통령 표창

**(주)아가월드 이석호 대표**

(주)아가월드는 1980년 8월 21일에 회사를 설립해 올해 창립 23년 주년을 맞았다. 이석호 대표(53)는 “명품이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한 길을 걸어왔다면서 그동안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제품개발에 역점을 둔 것이 회사발전의 비밀이라고 밝혔다. 이번 표창에서 아가월드는 수준 높은 교재교구를 개발하고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전개한 공로를 함께 인정받았다. 전국초등학생 무궁화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후원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동과 공동으로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2002년 한·일 월드컵 한국대표선수단에 승리기원 메시지를 보내도

록 행사를 펼쳐 사회발전에 기여한 점 등이 그것. 이 대표는 “출판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중요한 상을 받게 돼 죄송하다”며 출판계 인재를 열심히 키우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들라는 채찍질로 알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표창

**(주)한국몬테소리 김석규 대표**

유아교육 전문으로 몬테소리 교육이론을 국내에 소개한 (주)한국몬테소리는 1975년 창립 이후 28년 간 ‘평생을 생각하는 교육’ 이념을 실천해왔다. 그동안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교구를 소개하고 업계 최초로 어린이들을 위한 열린 놀이공간을 마련했던 김석규 대표(57)는 국내 유일의 목재교구를 일본에 수출해 한국출판의 국제적 입지를 마련하고 공인으로서 방문판매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앞으로 아이디어로 무장된 다양한 어린이책을 선보이겠다”며 질이 보장되는 책을 만들 것을 밝혔다. 한국 몬테소리는 대만에 《영어만세》를 수출하는 등 문화상품 수출에 의욕적이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에 어린이 교육교재의 가정방문판매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국무총리 표창

**관동출판사 이원희 대표**

관동출판사는 국어와 국문학 관련 도서출판을 통해 학문 향상 및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참고서 분야에서도 우수 학습도서를 개발·보급함으로써 학생교육과 학습자료의 질적 향상에 노력했고 특히 독일어와 한문 관련 참고서에서 두각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 도서에 대해 강력 대처함으로써 학습자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및 저작권 보호 향상에도 기여했다.

이 사장은 국무총리표창자로 결정된 것에 대해 “나보다 오랫동안 출판계에 몸담은 선배들도 많은데 더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표창

**(주)교문사 류제동 대표**

(주)교문사는 기술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 총 1,500여 종의 양서를 출간했다. 특히 가족·의식주 등 우리나라 가정 생활에 관련된 출판을 전문화함으로써 문화의 전승과 발

전에 공헌했다. 또한 중·고등학교 수학, 기술·가정, 가정과학 등의 검정교과서를 통해 중등교육 분야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류제동 사장(55)은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 등의 활동을 통해 출판문화 환경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류 사장은 “출판은 문화를 창조하고 전승하는 문화산업의 꽃”이라며 “출판인 개인의 역할은 물론 우리의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할 역할을 더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

## 인쇄출판의 날 대통령 표창자 인터뷰

### (주)보진재 김정선 대표

(주)보진재 김정선 사장(52)은 지난 9월 3일에 열린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1912년 8월 서울 종로1가에서 처음 인쇄기를 돌리기 시작한 보진재는 그동안 상호변경 없이 91년간 이어온 인쇄문화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대 김정선 사장이 대표를 맡은 이후에는 파주로 본사를 이전하고 디지털시대에 맞는 인쇄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상을 받은 김 사장은 이러한 주목이 부담스럽다.

“기업은 보통 10~20년을 주기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보진재가 파주로 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작년에 왔으니 이제 두 살밖에 되지 않은 셈인데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서울대 응용수학과를 나와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 등 대기업 전산실 출신에서 15년을 근무한 김 사장은 가업을 이어받은 후 가장 먼저 업무를 전산화했다. 특히 영업부와 총무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정하던 단가를 표준화했다. 이를 통해 비밀비재하던 서류상의 오류뿐만 아니라 수주업체의 관행으로 여겨지던 접대비 등을 없앨 수 있었다.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투명경영이 바탕이 되었다.

현재 그가 힘을 쏟고 있는 분야는 인쇄의 디지털화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미 출판선진국에 비해 5년 정도 뒤쳐진 상태다. 일본도 작년부터 본격적인 디지털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보진재는 10월에 편집에서 인쇄로 곧바로 이어지는 CTP(Computer to Plate) 출판을 도입할 예정이다.

### 이외 출판유공 정부포상 대상자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허상만 대표이사, (주)웅진닷컴 김준희 대표이사, 세명대 김기태 교수, 청호 백행군 대표, 능률영어 사 이친승 대표, 학교재 우찬규 대표, 길벗 이종원 대표, 대산출판사 김윤희 대표, 은하수미디어 문제천 대표, 경문사 박문규 대표, 새로운사람들 이재욱 대표, 국학자료원 정찬용 대표, 열림원 정중모 대표, 교육과학사 김동규 대표, 범한 김삼본 대표, (주)넥서스 임준현 대표, (주)생각의나무 박광성 대표, 꿈동산 임승원 대표, 철학과현실사 전춘호 대표, 학지사 김진환 대표, 인쇄 부문 \_ 계림인쇄사 이계환 대표, 제책 부문 문일제책사 김갑철 대표, 서적상 부문 광주광역시서점조합 김종섭 위원장, 대전광역시서점조합 한복수 이사, 삼성교육미디어 김병욱 대표, 대전배아제 이기훈 대표, 21세기 아이들 배규수 대표, 부산전문서점 이형욱 대표

### 이외 인쇄문화의 날 표창자

- 국무총리상 \_ 대양인쇄사 양기성 사장, 서진인쇄사 이광재 사장
- 문화관광부 장관상 \_ 진양인쇄공사 노주현 사장, 비자아이 남원호 사장, 신원인쇄사 김정숙 사장, 태영전산(주) 조만영 사장, 상원사 조상기 사장, 보성문화인쇄(주) 최종철 사장, (주)모아인쇄 안규상 사장, 지은문화사 오영철 사장, 일신인쇄(주) 홍순창 사장, (주)대아인쇄 이영수 사장, 정문출판(주) 정운근 사장, 월계인쇄(주) 김현석 사장
- 경영부문 인쇄문화상 \_ 홍일문화인쇄(주) 이연지 사장
- 기술부문 인쇄문화상 \_ 화성프린트부 이창규 사장
- 특별부문 인쇄문화상 \_ 청주고인쇄박물관 김종벽 관장, 직지상 백미문 회사 문동실 기장, (주)프린트플러스 한상대 전무이사.